

# ‘킹스 싱어즈’ 아름다운 하모니 광주에 울려 퍼진다

디즈니 100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  
아카펠라계 ‘비틀즈’ 세계 최정상 그룹  
ACC 슈퍼클래식, 10월20일 극장2

여섯 남자가 들려주는 환상적인 화음의 세계.  
아카펠라계의 ‘비틀즈’라 불리는 ‘킹스 싱어즈’는 지금까지 150장이 넘는 명반을 발매하며 그래미 어워드, 에미 어워드 등을 수상한 세계 최정상 그룹이다. 2013년에는 그라모폰 클래식 명예의 전당에 음악 앙상블 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앙상블 음악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정평이 나 있다.

킹스 싱어즈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무대에 설 예정이어서 화제다. 특유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펼쳤지만 광주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0월 20일(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2에서 킹스 싱어즈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ACC 슈퍼클래식 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그들의 편곡과 앙상블로 재현되는 디즈니 명 작품들의 주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음악적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까지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킹스 싱어즈 무대는 유쾌한 유희와 익살스러운 무대 매너, 조화로운 화음과 투명하게 정제된 음색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연 1부에는 ‘킹스 싱어즈’ 본연의 색채를 느낄



오는 10월 20일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 ACC무대에 서는 ‘킹스 싱어즈’ 멤버들. <ACC재단 제공>

수 있는 대표 작품들로 구성됐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 유명 작곡가 윌리엄 버드의 ‘구원을 위한 희생’, 토마스 윌크스의 ‘죽음이 나를 빼앗았네’ 등과 20세기 후반의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죄르지 리게티의 ‘년센스 마드리갈’ 중 ‘길고도 슬픈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일본의 유명 영화음악 작곡가이자 미니멀리즘 작곡가 히사이 시조의 ‘그곳에 있었다’ 등 서양 음악사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곡들이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어 2부에서는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하며 ‘킹스 싱어즈’의 멤버들이 직접 편곡에도 참여한 월트 디즈니 작품의 넘버들을 만난다. ‘알리 왕자’(알라딘,

1992), ‘오늘 밤 사랑이 느껴지나요’(라이언 킹, 1994) 등 아름답고 투명한 음색과 달콤한 화음은 관객들의 귀를 매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CC재단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아카펠라 그룹으로 알려진 킹스 싱어즈는 관객들을 마치 동화의 나라에 초대된 듯한 행복하고 설렘이 가득한 공연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ACC재단은 지역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매는 ACC 누리집 통해 가능하다. 관람료는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24~25일 광주예술의전당

파랑새는 희망을 상징하는 길조로 알려져 있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푸른 날갯짓은 소원을 이뤄줄 것만 같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이 기획해 선보이고 있는 ‘포시즌(For season)’ 공연의 일환으로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가 오는 24~25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창작(1906년)한 동명의 원작을 한국 최초로 뮤지컬화한 것이다. 미디어아트와 인터랙티브 영상 기술을 접목해 뮤지컬에 가미된 영상미가 기대를 끈다.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던 ‘틸틸’과 ‘미틸’, 몸이 아픈 미틸은 건강을 회복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느날 크리스마스 요정이 꿈처럼 찾아오고, 두 사람에게 ‘파랑새’를 찾아오면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말한다.

다. 그러면서 요정은 마법의 모자를 건넨다.

모자에 달린 보석을 건드려니 주변에 있던 물건들에서 생명과 영혼이 움트기 시작한다. 이를 계기 삼아 말하는 고양이 티레트와 강아지 킬로가 목소리를 갖게 된다. 일행은 밤의 공전,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 등지를 여행하면서 파랑새의 흔적을 스쳐 가지만 붙잡으려 하는 순간 새는 날아가버린다.

틸틸 역은 조윤호, 미틸 역은 안홍주 배우가 맡는다. 킬로 역은 백승민, 티레트 역은 장인혜가 연기하며 이외에도 요정(이진경), 할머니-물(김하영), 아빠-불(한진만), 엄마-빛(김아영) 등이 출연한다. 여기에 밀레니엄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를 곁들여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나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서영실 작 ‘충장무등일월도’

## 동구 곳곳 ‘기억의 자리’... 일상의 순간들

주안미술관 아카이빙 전시 31일까지

광주 동구는 역사와 전통, 정치와 문화 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인시장, 금남로, 충장로 등 역사적인 공간이 자리하고 있어 외지인의 방문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도심이 자리한 탓에 쇠락하거나 많은 공간들이 재개발되는 등 원래의 모습이 사라질 운명에 놓여있기도 하다.

동구 지역 공간을 모티브로 소소한 일상의 순간과 존재들을 기록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안미술관이 진행하는 동구지역 아카이빙 전시 ‘기억의 자리’가 그것.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서영실, 서재은 작가 2인이 참여해 기억 속 동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회화와 설치작품, 어반스

케이로 기록한 전시는 동구를 중심으로 추억과 감정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공간으로 초점화한다.

먼저 서영실 작가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구도심의 풍경, 사회적 풍경 등을 기록한다. 작가는 서구 문화와 한국 전통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시대인이자 화가로서 자신이 발 딛고 선 공간을 의미있는 시선으로 담아낸다.

길거리 풍경 스케치를 하는 어반스케치 작가인 서재은은 현장에서 본 느낌을 종이에 담아내는 작업을 한다. 낡고 허름한 집이나 건물을 모티브로 당시에 일어났던 순간들을 수집하며 기록한다.

주안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사라져가고 있는 공간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특정 공간과 그 자리에 남겨진 추억의 따스한 온기와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트&테크 융복합 창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

16일 광주디자인진흥원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아트&테크 융복합 창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오는 16일(오후 3시) 광주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연다.

프로그램은 전남지역 예술인이 작품을 창작할 때 예술과 과학의 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AI기술과 장편소설의 결합 또는 가상현실기술과 공연예술분야의 접목 등 융·복합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는 전남지역 예술인이려면 누구나 참가신청할 수 있다.

‘튜토리얼(가이드)’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아트와 테크의 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이다엔터테인먼트 대표 손상원(전 정동극장 극장장)이 ‘예술과 기술, 그 결합 사례’라는 주제로 오픈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설명회 참석자는 향후 선발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우대할 계획”이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전남문화TV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관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단 누리집에서 세부 사항 확인.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해변시인창작학교 시상식 모습.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 제공>

##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 ‘해변시인창작학교’ 성료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이 개최한 ‘제1회 해변시인창작학교’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해변시인창작학교는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진도군 임회면 죽림길 97)과 죽림리 갯벌체험장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나태주·신달자·허형만·안도현·정일근·김선태·하린·이근모 시인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의 특강과 박성현 화가의 꽃 그림 실연 등이 펼쳐졌다.

이밖에 임봉금 명장과 장지원 단원의 판소리(고수 장필식) 감상과 진도한춤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8개로 편성된 반에서 담임 교사의 문학체험에 대한 진솔한 대화시간도

진행했다.

특히 시의 품격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 전국시낭송대회는 박영숙 씨가 대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진 전문화가가 그려주는 멋진 부채 증정 외에도 백일장과 시화 그리기, 돌그림 그리기, 캘리그래피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순천에서 딸과 함께 참석한 이갑희 씨는 “이번 해변시인창작학교는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인생의 가장 값진 모멘트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해변시인창작학교는 전남, 진도군, 진도교육지원청이 주최했으며 한국박물관협회, 열린시학회, 죽림초등학교 동문회, 동구엔지니어링 등이 후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